

돈만 붓는 출산장려정책 대대적 손질 검토

나주시 매년 수십억 지원금 불구 신생아 수 매년 하락 추세 '500만원 일괄 지원' 체계 개선... 다양한 인구증가 대책 추진

나주시가 매년 수십억원의 출산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신생아 수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출산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남지역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아우르는 정책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10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전남도와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저출산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신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나주시의 경우도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면

서 지난 2005년 1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11년에는 9만명선이 붕괴되며 이어 8만명대로 줄어들자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나주시는 그나마 혁신도시 효과로 지난 2014년부터 인구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 기준 9만 8182명으로 인구가 늘었다.

신생아수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2년 691명에서 2013년 680명, 2014년 655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신생아수는 820명으로 전년 대비 165명이 늘긴 했지만, 이마저도 출산지원사업 효과보다는 젊은 층의 혁신도시 입주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효과도 미미한데다, 나주시는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생아에 대해 첫째아부터 50만원씩 10회에 걸쳐 5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이며, 임신부에게는 철분제와 엽산제 지급, 출산시 거저 귀 등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출산지원금만 지난해 기준 25억여 원에 이르며, 올해는 8억원이 늘어난 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시비로 충당되는 출산장려 정책지원 사업비는 나주시보건소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사업에도 신생아수는 되레 줄어들면서 나주시청 내부에서도 출산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출산율 높이기에만 집중해왔던 나주시의 인구증가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효성 없는 예산을 대폭 줄여 나주 혁신도시 이주정책과 9000여명에 이르는 동신대와

고구려대학생들에게 주민등록상 나주시민이 되면 일정 기간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시책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연간 4억4000만원에 불과한 귀농·귀촌사업 예산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나주시도 출산 지원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고민하고 있다. 일단 오는 7월부터 출산지원금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500만원씩 일괄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수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등 각종 노력을 해왔지만, 출산율은 돈만으로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출산율 높이기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536개 마을 4만1500건 봉사

'행복나주 이동봉사단' 맞춤형 방문서비스 호응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원들이 최근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 오지 마을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의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교통이 불편한 관내 13개 읍·면 지역 마을을 돌며 자원봉사자들이 펼치고 있는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의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서비스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행정의 '행복도우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순수 민간 참여자들과 자원봉사단체, 사회·기관단체들로 구성된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은 매달 두차례씩 20개 분야에 50여명이 배정돼 교통이 불편한 관내 13개 읍·면 지역 마을을 돌며 다양한 봉사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536개 마을에서 4만1500여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부터 전기, 가스, 수도, 가전제품 수리, 자전거수리, 컴퓨터수리, 이·미용, 칼집이, 빨래방, 토지 지적민원, 경찰민원, 이동목욕, 가사정리 등을 돕고 있다.

이재승 나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올해부터 말 마사지와 네일아트, 건강체중 등 새로운 분야를 도입하는 등 복지의 폭을 도시민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맞춤형 체감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전봇대 사라진 영산포 흥어 거리 쾌적해졌네

18억 투입 전선 지중화 사업 완료...상권 활성화 도움 기대



알짜한 흥어가 유명한 영산포 흥어 거리가 새롭게 달라졌다.

나주시는 10일 "최근 흥어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던 전봇대와 전선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나주시와 한국전력공사, KT, LG U+ 등 4곳이 18억원의 사업비를 분담했다.

470m에 이르는 영산포 흥어 거리에 있는 전봇대 27개와 지상에 걸려 있던 전선 등을 모두 철거했다.

나주시는 지중화 사업으로 흥어거리 상가 전면이 개방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돼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중화 사업을 계기로 근대 개항기(開港期) 모습을 살린 근대거리와 각종 축과 전을 펼었던 이른바 골목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중화 사업으로 600년 전통이 살아있는 흥어거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벼 재배 농민들 내달부터 월급 받는다

나주시·13개 농협 협약 체결

나주시 벼 재배 농민들이 오는 3월부터 월급을 받는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에서 지역 내 13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 협약을 하고 3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걷이 뒤 받을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으로 월급은 농협이,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한다.

각 농가는 자신이 출하할 예상 수매량의

60%를 월급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다.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매월 20일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월급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다.

지난해는 미국종합처리장을 소유한 남평, 마한, 동강, 다시농협 등 4곳에서 취급했으나 올해는 지역 내 전체 농협으로 확대됐다.

대상 농업인도 162농가에서 올해는 50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자 비용으로 지난해보다 5000만원 많은 7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농가는 원금만 갖고 연리 6%의 이자는 시



강인규(가운데) 나주시장은 최근 나주시청에서 지역내 13개 농협 대표들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가 부담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가소득이 가을에 집중하기 때문에 영농준비 시기에는 정작 돈이 없어 농가부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안정된 소득으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 영농의욕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나주시의회 도시디자인연구회 사랑의 연탄 전달



나주시의회 도시디자인연구회는 "최근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등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15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3000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시디자인연구회 회원인 장행준, 김관만, 김용경, 허영우 의원 등을 비롯한 장재호 동장과 희망복지지원팀장 등이 참여했다.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장행준 나주시의원은 "시민들께 받은 격려를 조금이나마 되돌려 드리자는 마음을 담아 이번 연탄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대한보청기 www.maxo.co.kr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이 제품은 '보청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지 말고,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프로' **맥소'스텝'** **맥소'크리스프'** **맥소'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권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특가·맞춤렌탈·장기신용할부·국가보조금 대상자 특별지원

33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1599-9040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광주·전남 062)430-8900
순천·여수 061)741-4880
전북·전주 063)251-4999

◆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광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부산중구본점 051)632-62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